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 경남지역 고수온 피해현장 점검

- 하동군 해상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대응상황 점검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4일(금) 하동군 금남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8월 10일 13시 기준 경남지역(사천만·강진만)의 수온은 26.6℃로 전년 대비 0.7℃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숭어양식장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연이은 폭염과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현장의 어업인분들께서 겪고 계실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여 히트펌프,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양식수산물 조기출하와 소비촉진, 긴급방류 등을 통해 고수온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이나현 (051-773-5622)
			주무관	남정희 (051-773-5392)